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4호 [무게 제25277호] 주제 105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촬영장은 끝없이 설레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휘황찬란한 설계를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대회장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울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인한 지도적지침으로 뛰어넘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는 강위력한 항도적력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인민의 자주적인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만민대계의 진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총대와 마지와 낮과 밤을 역세게 틀어잡고 당의 위업을 헌신적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출력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참가자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더러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걱정없이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로동당의 밝은 기쁨을 역세게 추켜들고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장애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핵심,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빛내어주시고 대례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해 총진격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제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풍수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 파장 김영장은 조선혁명박물관을 대양조선의 태극보판으로 꾸리는 사업에 많은 심비와 자재들을 지원하였다.

지난 기간 설계위원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를 길이 빛내이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제오기술학작회사 로동자 주급숙은 조선혁명박물관부기기에 동원된 설계위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정을 기울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설계위원들에 대한 사무처는 그리움을 안고 모란봉구역 종합양봉로동자 보은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순결한 향기를 바치면서 설계위원들을 돌살방편으로 도왔다.

보향지도국 산하단위 부서장 리성복은 주체의 혁명정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같이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마음안고 가정에서 정성다해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여러차례나 보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고결한 충성을 지니고 양각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최용남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완벽하게 꾸리는 사업에 앞장서고 중요대상건설에서도 모범을 보이었고 영흥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 동역원 오현일은 풍실방편의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이 혁명적열정에 넘쳐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축구협회 부장 한은경은 가정에 돌며주시 친솔위원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열의안고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전사물들을 영구보존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기증하였다.

영화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정선희는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단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지보를 끝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애국한 향기를 비침으로써 총정파 애국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일념밑에 평양양말공작 의사 박금주는 백두산설계위원들의 영상작품들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외교단사업총국 부원 박광혁은 공시에 절실히 필요한 심비와 자재들을 여러차례 지원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평안남도점할소 처장 김창남은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라선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문금숙도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 충성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에 중만되어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나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혁명당 전체 당원들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냅니다.

당신께서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신것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시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명도하고계시는 당신에 대한 형제적인 조선의 진당과 진국가,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과감한 명도밑에 형제적인 조선인민이 주체사상과 선군로선을 따라 조국을 보위하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킨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냐 워 라 찌

2016년 5월 10일
비엔티안

위대한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낳은 빛나는 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당의 전투적요소를 피륙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70일전투천야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대국의 무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투대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온 국방부문의 성과에 화답하여 우리의 미더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고 제철생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리만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동지가 동행하였다.

전시장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나날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

로 제작한 기계설비들이 단위로 전시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성트랙도르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80마력트랙도르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형의 트랙도르가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

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기술적성능들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능력이 큰 새형의 트랙도르를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부문에서 새로 제작한 파종기, 두둑짓는 기계, 종합발달기, 분무기, 후치기,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60~70%수준에 올려세우며 능률높은 농기계를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농기계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개발한 115마력디젤기관을 리용한 5등급화물자동차, 청진버스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버스를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포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한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수산부문에선 무어낸 《황금해》계열의 만능화원 고기배, 평남해수리공장에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를 직관들을 통해 보시고 나라의 철도부문과 수산업, 해상운수발전이 이바지할수 있는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전시장에 현물 또는 직관물로 전시된 CNC기계, 무정형현심을 리용한 변압기, 에너지를 절약형변압기, 진동기, 풍력발전기, 대용량발전기 수차식려차기, 제취기계설비들, 산림기계들도 모두 기술경제적의의가 대단히 큰 제품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만든 새형의 트랙도르, 버스,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을 향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이번 전시회는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총동력에 펼쳐나선 전만군민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낳은 빛나는 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2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장에
출품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
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우
리는 반드시 수입병을 뿌리뽑고 수입병
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
의 전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
니라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
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
지 기계제품들을 훌륭히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할 주시였으며 하루빨
리 계렬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
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운
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행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면시
켰다고 하시면서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굳게 확신한 오늘의 걸음
은 참으로 의의가 있는 걸음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
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
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야말로 우리의 힘의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
가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위력한 무기
라고 하시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로선과 정책판찰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
로 창조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의 붉은 당기 세계의 중심에서 영원히 휘날릴것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정당이 있다. 역사를 자랑하는 당들도 있고 공적을 자랑하는 당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근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이 단 하나의 조선상각으로 당선되고 인민의 혁명적정체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성의 위력만을 펼쳐 온 위대한 당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당은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에서도 조공도 흔들림없이 조선혁명을 승리해 영광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 하였으며 세계가 일제히 달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만을 창조하여 왔다. 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날 력사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해 이룩어나가고 있다.

세계 수많은 진보적정당들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채택된 력사적인 정당선언을 《20불선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의 기치》라고 하면서 투쟁강령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1992년 4월 평양선언이 채택될 당시 여기에 서명한 정당들이 70개였지만 6개월후에는 140개로, 1년후에는 170개로 늘어났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당은 세계의 중심에 확고히 서 있다.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가 휘날리고 있다.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우리 당을 가리켜 《혁명적인 혁명을 지니고 있는 당》, 《세계 혁명적정당들의 기수》라고 하면서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이 지니고 있는 높은 존엄과 권위, 지위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배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울라지보 스토크시위원회 제1비서의 자격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울라지보 스토크시비서 피콜라예브가 한 말이 있다.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셨기에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조선의 군민은 신념의 장자로 되었으며 조선식사의 주체가 굳건하고 인류자주위업은 자기의 패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하디면 그가 어떻게 되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피콜라예브로 말하면 군인식절부라 당이라는 때에 인민을 싣고 사회주의정선으로 팔라지 달라고 하는 열망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상을 안고 그는 제2차 당대회로 지명

하였고 원동에서 당사임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현실을 맞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수십년간 휘날리던 붉은기가 내리워졌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자들이 사회주의의 혁명을 막기 위해 사투리를 써서 자기를 잘못이라고 하면서 력사적 거꾸로 되돌려세워보려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동경하던 적지 않은 진보적정당들이 동요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길 몰라 갈

정지활동이 완전히 금지당하였다. 그후 당 제2차 비상대회에서 재선을 선포하였으나 당건설과 활동 특히 당사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피콜라예브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소련 당학회의 당건설론과교과서에는 당의 당사사업론이 차용되어 있었고 신념론과 같은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선령론으로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없었다. 그는 정신적면목에서 갈길을 모색하며 모태되었다. 이런 그에게 정당이 비쳐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받아들인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계 90년대에 로씨야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의 승리에 대하여 대서특필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며 나타났었다.

1993년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기판지를 펼친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인민들이 만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내리받았었다.

세계는 로씨야 내전에서 사회주의의 붕괴와 제2차대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조선에서 진행된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파업, 당사사업의 원칙적요구와 기본원칙, 사회주의신념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밝혀진 조각들을 그어달라 당학회의 총서였으며 당사사업의 교과서였다.

피콜라예브는 환성을 올렸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는 우리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통하여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느낄수 있었다.

가자. 세계적인 판도에서 휘날린 반사회주의정당들에게

시 사회주의정당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변함없이 붉은기를 휘날리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있는 평양으로 가자. 어떻게 되어 조선이 붉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평양으로 왔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는 많은것을 느꼈었다.

조선에서는 사랑의 정객들과 어울려보기도할것이 입이 아프게 떠돌아다니는 비판과 우물갈은것은 그러하지 찾아볼수 없었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한회에 넘쳐 강성국가

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것이 조선의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을 더욱 붙여잡은것은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펼쳐 나뉘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였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계 90년대에 로씨야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의 승리에 대하여 대서특필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며 나타났었다.

1993년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기판지를 펼친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인민들이 만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내리받았었다.

세계는 로씨야 내전에서 사회주의의 붕괴와 제2차대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조선에서 진행된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파업, 당사사업의 원칙적요구와 기본원칙, 사회주의신념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밝혀진 조각들을 그어달라 당학회의 총서였으며 당사사업의 교과서였다.

피콜라예브는 환성을 올렸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는 우리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통하여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느낄수 있었다.

가자. 세계적인 판도에서 휘날린 반사회주의정당들에게

로 제국주의연합체력과 어떻게 맞설수 있었는가. 세계는 우리를 무시하였다. 이것은 공연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의 정치지도자는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93년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명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다. 전국, 전민, 전군이 현주제력의 지지를 안고 신장같이 떨쳐나섰다.

마침내 조미대결은 조선로동당의 붉은기앞에 미국이 힘겨움을 느끼고나서고있었다.

세계가 가져다준 거적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를 붙여보며 피콜라예브는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준엄한 력사적시기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세계공산주의운동에 사상정신적생명을 쏟은것은 조선로동당이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전체적인 사회주의 사상 리본가로 세계의 청춘을 받고있는 김정일동지께서 아니시고사야

그 누가 어떻게 력사의 조복을 거꾸로 되돌려세우려고 말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책동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운동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는가. 조선로동당의 필승의 위력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가져다준 거적이었다. 조선로동당이 이겨 준 것은 전체적적위와 비범한 통찰력, 무비의 당력을 지닌 김정일동지의 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치과정속에서도 거역치 못하였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즈음하여 중국에서는 김정일동지사회 개혁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축모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사, 사관 및 수령에출연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대한 당의 명도마과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를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위대한 백두령의 명도마과 노도초자라는 우리의 힘을 당항하여 이 세상에 없으며 선군조선의 백승의 신화는 영원할것이다》를 1일부터 5일까지

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 인베트라스통신과 인베트라스통신인 웨스, 루, 드, 누, 네달인테르프즈 《세라프 루테이》 그리고 도이월판트비제연단, 페루조선

통신문화협회, 브라질주제사상 연구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브라질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베트라스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프랑스 친선 단체 유엔안보리사회에 항의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4월 19일 미국의 대조선안보리에서 추종하고있는 유엔안보리사회에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는 유엔안보리사회가 미국의 강압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세계적의》를 조작한것을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위로, 유엔안보리에 대한 위반으로 단죄하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미국조선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실제적인 문제인 미국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유엔안보리사회가 의제로 삼았기 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인 미국과 남조선이 변별수업에 조선의 《위협》에 대해 미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는 명백히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조선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묵인함으로써 유엔안보리를 위반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싸일방위 체계전개에 강경 대응 경고

로씨야의무장 세력이 로브로브가 최근 통유럽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로브로브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설치하는데 이 어찌않아 불스카에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로씨야를 겨냥한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나

로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행동에 최대의 우려를 표시하며 필요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에 로씨야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견제책은 로씨야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나도가 핵무기상에서 새로운 대결구도를 형성하려 하고있다고 비난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며칠전 로브로브의 공군기지에 미군전투기 2대가 착륙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로씨야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대응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로씨야의 대결이 점차 현실화되고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드리스 데비 이프노 차드대통령으로 재선

차드에서 이드리스 데비 이프노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지되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대통령선거

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이 나라 선거위원회가 밝혔다.

정보통신기술발전 호소

제니에대통령 우후루 제니에가 4일 경제연대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이프리카나라들은 정부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리움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반이관결정 비난

멕시코판공동중조위원회가 5일 컴퓨터를 발표하여 이관에 대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비난하였다.

미국은 국제법과 규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철회하고 나라들 사이의 불가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컴퓨터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분렬리간 책동 단죄

쿠바전국노동조합이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쿠바인민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분렬리간 책동을 폭로단죄하였다.

최근 미국이 수입화상품목에 쿠바의 국경지대에 이난 비정무기구단대의 생산품만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지적하고 성명은 여기에는 쿠바의 근로대중을 국가로부터 떼어내려는 음모한 목적이 있다고 까뻐냈다. 성명은 미국이 정적으로 쿠바인민의 불의를 바란단인 민적이 이상 지시되고있는 경제, 상업, 금융분야를 즉시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소를 격멸한 력사적승리의 날

5월 9일은 로씨야 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71년전 이 날 이진 소련군대와 인민은 과소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로씨야의 존엄과 발전, 존엄과 영예는 이날과 빼어날수 없다. 1941년 5월 과소침략자들은 소도불가침조약을 헌신적처럼 깨뜨리고 4월 22일 소련의 국가인 소련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과소침략자들은 전쟁사상 그 무례한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었다. 소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군을 떨치고 이 어려운 싸움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

었다. 신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소비에트공화국의 귀중함을 실감으로 느낀 소련군대와 인민은 소련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붙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승적영웅주의의 길을 걸었다. 소련인민은 소련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붙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승적영웅주의의 길을 걸었다. 소련인민은 소련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붙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승적영웅주의의 길을 걸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세계의 군주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남아 없을것이다. 미국과 동등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높아 대가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대함에 있어서 미국은 자주권중이나 정동, 내정간섭과 같은 국제법적요구를 양심에도 두지 않는다. 미국이 하는것은 어느것과도 맞지 않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내정간섭과 같은 국제법적요구를 양심에도 두지 않는다. 미국이 하는것은 어느것과도 맞지 않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내정간섭과 같은 국제법적요구를 양심에도 두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

조수조형선,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지고있다. 지난 9일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승절 71주년을 경축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수상 드미트리 메드베드코, 연방회의와 국가회의 의장들, 정부원들 그리고 집행부원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무명전사묘에 환원을 진행하였다. 이날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축하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대통령은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단결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에 로씨야의 힘과 자신성, 존엄이 있다고 하면서 승승들은 로씨야인민이 세운 신성한 위업을 보여주기 위한, 항상적으로 살고 권리와 정의의 수호하며 이 가치관을 대대손손 이어갈것을 호소하는 날로 영원히 힘을 갖추지 않고서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켜 줄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히 새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수조형선,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지고있다. 지난 9일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승절 71주년을 경축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수상 드미트리 메드베드코, 연방회의와 국가회의 의장들, 정부원들 그리고 집행부원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무명전사묘에 환원을 진행하였다. 이날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축하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로씨야대통령은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단결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에 로씨야의 힘과 자신성, 존엄이 있다고 하면서 승승들은 로씨야인민이 세운 신성한 위업을 보여주기 위한, 항상적으로 살고 권리와 정의의 수호하며 이 가치관을 대대손손 이어갈것을 호소하는 날로 영원히 힘을 갖추지 않고서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켜 줄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히 새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프랑스대통령 올랑드가 3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였다. 그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유럽동맹의 근본원칙이 무시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는 현 단계에서 이 협정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나라가 규정이 없는 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조선중앙통신】**

실업자 증대

미국에서 4월 30일까지의 1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27만 4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 7 000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5일 미로통상외교부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4월 30일까지의 1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27만 4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 7 000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5일 미로통상외교부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4월 30일까지의 1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27만 4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 7 000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5일 미로통상외교부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